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례 12:15

409

2019.4.28

장애인 주일 특집호

2019년 주님의교회 표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신명기 6:5~7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나라 /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
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
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
시니라 _ 골로새서 3:1, 11

오늘의 주요기사

- 1면 오늘의 주요기사
- 2면 장애인 주일 기도문
- 3면 성서칼럼, 교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
- 4-11면 장애인 주일 특집
- 12면 포마인터뷰, 사역소식, 알립니다.

교회일정

- 5/1(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
- 5/5(주일) 어린이주일
- 5/12(주일) 어버이주일 / 성찬주일
- 5/16(목) 통일선교학교 개강
- 5/19(주일) 교사주일 / 결혼예비학교 개강
- 5/26(주일) 청년주일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유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교회를 향해 가는 행복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이의 병
치료하며 나으리라는 믿음으로 “살려주세요” 기도하며 버텨온 시간들
이 시간만 지나가면 괜찮아질거야
정상적인 보통의 삶을 살 거야
하지만
독한 약들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정상아로 돌리기 위한 재활치료들
그러나 또다시 찾아온 병마
힘들어할 겨를없이 지나쳐 가는 시간들 속에
교회를 향한 발걸음은 무거워져 갔다
장애로 인한 인지 저하로 인해 예배 중 소리 내고 웃고 돌아다니고
잠을 자버리는 아이
예배 방해자로 눈총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 갈수록
나의 예배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 가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6년의 기간 동안 아이로 인해 3곳의 교회 옮김을 당해야 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은 가정에서 순탄한 믿음 생활을 했기에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교회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차지했었다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나누고 돌보고
힘든 시간이 길어져 갈수록
예배가 간절했고 기도의 자리가 간절했지만
아이와 분리되어지지 않는 삶은
예배 방해자로 바라보는 시선들에게서 숨어버리고 싶었다
힘든 시간 속에 주님의교회 성도님으로부터
장애 아동을 위한 토요 체육시간을 소개받았다
토요 체육 후 고민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교회로 향했다
아이와 분리되어 혼자 드리는 예배
전도사님 · 장로님 · 권사님 · 집사님 · 청년선생님 · 성도님이 하나 되어
희생과 사랑으로 아이와 같이 예배드려 주시기에 가능한 예배 시간

교회를 가고 싶다
예배드리러 가고 싶다
두렵지 않다
주일이 기다려진다

내 삶이 바뀌었다

이진혜 성도 / 사랑나무 이우주 학생 엄마

장애인 주일 특집 | 주일예배 대표기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그리스도께서 대신 찢리심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해주신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와 참믿음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종과 행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굴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과 탄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참 소망과 영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감사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과 그 능력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곳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에게 맞추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기 위해
주님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 우리 모두 삼 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와 죽음의 속박과 절망과 자포자기의 나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진 새로운 현재와 미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현재와 미래 속에서 무의미했던 우리의 과거마저 새로운 의미로 되살아나게 해주셔서 덧없거나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부활의 새날들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은 영광의 부활주일이지만 주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 장애인들의 주일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장애라는 버거운 십자가로 인하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길처럼 너무나 고통스럽고 등이 휘어지듯이 힘겹게 눈물 지으며 살아가는 저희 장애입니다.
때로는 그 장애라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가미 주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육체의 장애라는 그 고통보다는 세상 삶 속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삶의 현실이 눈물겹도록 마음이 외롭고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눈물로써 호소하며 찾아야 했고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품을 간절히 갈망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며 주님께 두 손 모아기도한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돌아보사 주님의 품에 꼭 안아주사 사랑하는 나의 아들딸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며 위로해주신
주님이 계셨기에 저희들이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어도 지금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저희를 향해 위로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안에서 외롭고 두려웠던 저희의 마음이 희망의 삶의 의미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안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삶의 현실의 나락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안에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와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부활의 예배를 위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한 마음 위에 기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화수 목사님의 영과 육을 보호하시고
대언하시는 그 말씀이 좋은 밭에 심겨진 것처럼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믿음으로 화답하며
세상에 나가서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참 빛 된 자들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서칼럼 돌부리

두 여자의 12년(마가복음 5:21~43), 첫 번째

열두 지파 연합체의 경계를 다잡아주던 희년의 이상은 대토지 소유주와 일용직 노동자 사이에 팬 심연 아래로 가라앉았고, 군림하는 왕 없던 출애굽 공동체의 자유와 평등은 명예와 수치와 가파른 계층 피라미드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처럼, 갈릴리 바다 맞은편 유대인 마을의 두 여자를 휘감은 12년은 이스라엘의 이상과 몰락한 현실을 동시에 환기하는 양가적 시간이다.

여전히 예수께서 바쁘시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방인 마을에서 귀신의 이름(“레기온,” 407호 성서칼럼 참조)을 밝히신 예수께서는 이제 서둘러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유대인 마을로 향하신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큰 무리가 몰려온다. 바다 건너 이방인 마을은 “군대”귀신에 사로잡혀있었는데, 이 유대인 마을 사정은 어떨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살게 하소서”(5:23) 귀한 딸의 생명이 위태로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앞에 간청한다. 그러나 이 급박한

아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의 발걸음은 야속하게 더디다. 느긋한 그 발걸음에 눈치 없는 한 여자까지 끼어든다. 십이 년간 만성 출혈(“혈루증”)에 시달리던 이 여자는 뒤에서 예수의 옷자락을 쥐었고, 예수께서는 많은 무리 가운데 그 여자를 찾아내겠다고 멈춰 서서 둘러보며 시간을 보낸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5:34) 그렇게 만성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자기 삶을 되찾는 동안, 회당장 집으로부터 비보가 전해진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5:35)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치 예상이라도 하셨다는 듯,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신다. “소녀야 일어나라!”(5:41) 예수의 부름에 곧 아이는 살아나 밥을 먹는다. 소녀가 살아나자 마가복음은 넌지시 방백을 건넨다. “나이가 열두 살이라”(5:42)

십이 년 된 만성 혈루증 여자와 열두 살 난 어린 딸의 죽음. 우연의 일치일까? 무언가 수상하다. 이 이야기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음미하기 위해서는 상징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시하는 마가의 문학 기법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우선 “12”라는 숫자를 매개로 두 여자의 운명이 뒤얹힌다. 사실 마가복음에서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중요한 상징

이다; 갈릴리 바다 서편 유대인 마을에서는 환자도 십이 년간 아프고, 열두 살 난 아이가 죽으며, 오천 명에게 나눠주고 남은 빵도 열두 바구니에 찬다(6:43). 예수께서 세우신 (유대인) 제자도 열두 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12”라는 숫자로 예수 시대 이스라엘을 호명하는 것만큼 아이러니한 일도 없다. “12”는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임의대로 왕을 세우기 이전의, “열두 지파 연합체”였던 이스라엘을 환기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스라엘은 가혹한 왕정 시기를 지나, 로마 총독부와 이에 기생하는 토착 권력이 활개 치는 지중해 제국의 한 식민지로 전락했다. “열두 지파 연합체”의 경계를 다잡아주던 희년의 이상은 대토지 소유주와 일용직 노동자 사이에 팬 심연 아래로 가라앉았고, 군림하는 왕 없던 출애굽 공동체의 자유와 평등은 “명예와 수치”의 가파른 계층 피라미드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처럼, 갈릴리 바다 “맞은편”유대인 마을의 두 여자를 휘감은 12년은 이스라엘의 이상과 몰락한 현실을 동시에 환기하는 양가적 시간이다.

배에서 내린 예수는 이 두 겹의 시간 한복판에 선다. 그 예수 앞에 나타난 열두 살 난 딸의 아버지 야이로는 “회당장”(5:22)이었다. 우리말 “회당”은 그리스어의 “쉬나고게(synagōgē)”를 번역한 말이다. 일반적인 헬레니즘 사회의 맥락에서 “쉬나고게”는 정치-

종교적 축제나 절기 등의 목적을 가지고 회집한 모임을 뜻하지만, 신약 성서에서 회당은 정기적인 지역 공동체 집회의 성격을 띠며, 자치적 차원의 정치사회 제도다. 복음서에서는 중심부의 예루살렘 성전 권력과 함께 각 지역 거점의 회당 체제가 갈릴리에서 유대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포괄하는 정치-경제-종교 권력의 양축을 이룬다. 간혹 근대적 관점에서 회당을 단순한 종교시설(건물)이나 종교집회(모임)로 오해하는 일도 있지만, 회당에서 행해지는 모세 율법과 이에 대한 해석·적용(“장로의 유전”)의 선포가 의미하는 바는, 회당이 단순한 예배당이나 종교시설이 아니라 한 지역의 정치-경제-종교 권력이 수렴하며 배분되는 중심지이며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반복해서 “정치, 경제, 종교”등의 단어를 열거하는 것도 근대인의 강박이다. 고대 사회, 특히 예수 시대 갈릴리 같은 농촌이나 소도시 지역에서는 이 모든 영역이 분리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이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 마을은 지역 회당 체제를 통해 구획된 동질의 정치사회 공동체, 즉, 정치학 용어로, 하나의 “바디 폴리틱”(body politic : 오늘날 관점에서는 “국가, 민족, 국민”등으로 번역되는 단일한 정치적 통일체)이라 할 수 있다.

› 다음 호에 계속
손경민 전도사

교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양코르 연재) > 기도 용어 편 3

하나님을 감히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전능하신, 진실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도 서두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수식어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수식어로 요즈음 ‘참 좋으신’과 같은 말이 사용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것은 재고를 요하는 말이라 하겠다. 즉 성경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수식어로 쓰인 말들을 보면 ‘거룩하신’, ‘만유의’, ‘생명의’, ‘진실하신’, ‘의로우신’, ‘자비하신’, ‘영원하신’, ‘위에 계신’, ‘능력이신’, ‘진실하신’, ‘구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사유하시는’, ‘은혜로우신’, ‘보수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홀로 하나님인’, ‘천지를 지으신’ 등과 같이 대부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들이 수식어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참 좋으신’은 이 범주에 들지 않는 수식어가 된다. 즉 ‘참 좋으신’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의 주관

적인 감정, 정서로 느끼는 바대로 표현한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알팍한 주관적인 감정으로 그 속성을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를 과장하여 발전시킨다면 ‘사랑스러운 하나님’(사랑의 하나님)과는 판이한 뜻이 된다, ‘미운 하나님’, ‘야속한 하나님’, ‘귀찮은 하나님’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 사용불가

기도하는 중에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영원히 존재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도 살아 있다는 표현은 ‘언젠가는 살아있지 못할지 모른다’ 또는 ‘아직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등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극히 제한하는 표현이 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함글함글 정리

장애인 주일 특집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

부활절 예배 때 특송을 한 에바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면서, 장애인 주일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지 삼 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갖고 축사한 후 떡을 떼어 그들에게 준 후에야 제자들은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허영이 눈을 가려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 모두는,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해짐을 되새기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과 장애인 주일을 맞습니다. 여기 장애인 사역부의 싯딤나무, 에바다, 그리고 올해 십주년을 맞은 사랑나무를 소개합니다.

함줄함울



장애인 주일 특집 | 사랑나무

거꾸로 부르는 사랑의 종소리

몇 년이나 됐을까? 우리 교회는 예배 끝자락에 파송의 찬양으로 <사랑의 종소리>를 불러오고 있다. 2017년 1월 처음 주님의교회 사랑나무 부서로 부임한 나는 한동안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는데, 특히 아래 소절을 부를 때면 그러했다.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선 곳이 달라지면 풍경도 달라진단다. 어려서부터 익숙했던 이 노랫말이 사랑나무 소속이 되고 나니 새롭게 다가왔다. '성도들이 우리 친구들을 더 참아주게 하소서. 친구들을 더 감싸주게 하소서. 더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함께" 주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며 노래한 것이다.

당연한 변화였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직접 겪어보고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은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오해하고 오해 받는다. 상당한 배려가



없으면 순식간에 소위 "일반인"들의 세계 바깥으로 밀려나고 격리되기 십상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소극적인 차원의 도움(관심, 이해, 관용)과 적극적인 차원의 도움(시간을 함께함, 기회를 제공함)이 미흡할 때 그들은 예배, 사귄, 섬김에서 배제되고 만다. 그래서 교회가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하루하루 친구들과 부대끼는 시간이 쌓여가는 동안 이 노래의 의미가 거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관점의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그들을 참고 감싸안고 사랑하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나를 참고 감싸안고 사랑해주었음을 알아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 참음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 감싸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먼저 참는 것도, 먼저 감싸주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그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의사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다가가는(그리고 설교하는!) 나를 참아주었다. 내가 생산성으로 자신을 입증하려는 유혹에 빠져 심히 지칠 때면, 그들은 사람이 행위가 아닌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내 마음을 감싸주었다. 내 자신이 자랑스러울 때나 부끄러울 때나 나를 환영해 주고, 내 곁에 머물기를 즐거워해 줌으로써 나를 사랑해 주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베풀기 이전에, 그들이 내게 베풀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묻는

다면, 하나님의 신비라고 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서로" 참아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인내와 포용으로 "서로"의 절반을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절반을 잘 감당하면 할수록, 그들이 성도로서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발달장애인들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고전12:7) 교회를 견고케 하는지(롬 1:11)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랑나무를 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사랑나무가 우선이라며 배려해 주시는 분들, 안부를 묻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가끔 찾아와 같이 예배 드리고 '참 좋았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 눈이 동그해진 어린이들에게 사랑나무 친구들이 조금 다를 뿐이라며 설명해 주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의 예상치 못한 행동을 이해해 주시고 관용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재인 전도사

장애인 주일 특집 | 사랑나무

사랑나무 십 년을 뒤돌아보며

**막혀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고
둔한 혀도 풀어주소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십여 년 세월이 흘러갔네요. 처음엔 서툴기가 짝이 없던 우리 쌤들도 이제는 다 전문가가 되어가고 모두가 다 성숙해졌어요. 나무가 하나님이 주시는 적당한 비와 공기를 통해 날마다 자라가고 있듯이 우리 사랑나무 아이들도 날마다 자라서, 처음엔 키가 작아 내려다보던 아이들을 이제는 올려다보면서, 많이 자랐구나, 그러고 보니 알게 모르게 지혜도 자라고 말도 더 잘 알아듣게 되는 행동의 변화를 느낍니다.

예배 찬양 성경 말씀도 기도도 이제는 얼마나 잘하는지. 부끄러움을 많이 타던 아이들, 앞에 나가는 것을 잘 못하던 아이들, 이제는 나가서 율동도 하고 자신감이 생겨서 앞에 나서는 것도 자기 의사 표현도 정말 잘해요. 처음 하는 것은 좀 서툴지만 몇 번만 반복하면 비장애인 아이들처럼 익

숙하게 잘하고 있으며 집중력이 있어서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잘하고 있고 허락 받고 약속만 하면 더 잘하기도 하고 인내하고 참을 줄도 알고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하는 핸드벨 소리도 처음엔 소리가 작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힘들어할 뿐 학생들끼리 부딪혀서 큰 소리 한 번 나는 것도 없고 간식 많이 먹겠다고 큰 소리 내는 것도 없고 얼마만큼 먹으면 행복한 얼굴로 교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웃음 가득한 얼굴로 부모님을 기다리며 놀고 있습니다. 약하디 약한 아이들 면역이 좋아져서 다들 질병에 걸리지 않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저만큼 키우신 부모님들은 얼마나 여러 번 시행착오도 가슴 뛰는 일도 남몰래 눈물 짓는 일도 많이 있었을 텐데 더 이상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혀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고 둔한 혀도 풀어주소요. 힘을 다해 말하는데 알아듣지 못해서 미안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악기를 하나씩 배워서 오케스트라도 만



들어서 자랑할 때를 기대해 봅니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주간 보호도 만들 어지길 기도해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많은 섬김의 봉사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셔서 지금 사랑나무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습니다. 유성훈 목사님의 두 자녀로 태동되고 교실도 없이 제3집회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박원호 목사님께서 지하 주

차장을 없애고 교실을 만들어 주셔서 지금은 몸이 불편한 학생들 바닥에 앉기도 하고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씩 섬기시다가 떠나가신 집사님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나무 학생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 학생들 (작은 천사들) 많은 사랑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정선 권사

장애인 주일 특집 | 사랑나무

좀 특별한 사역부서, 사랑나무를 소개합니다!

1. 사랑나무는 어떤 부서인가요?

발달장애(자폐, 지적장애)를 가진 분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2. 사랑나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발달장애인(사랑나무 친구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교사, 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나무 친구들과 교사, 봉사자 모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예배는 언제 드리나요?

주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같은 시각 진행되는 3부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4.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요?

예배 형식은 일반적인 예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성원들 개성이 강해서 재밌는 장면이 많이 연출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

5. 교사(봉사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

함께 머물며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장애를 초월하여 어우러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께서 친구들과

잠시 분리되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6. 봉사가 어렵지 않나요?

와서 보시기 전까지 그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직접 경험하신 뒤에도 봉사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별로 없습니다.

7.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되나요? 누가 교사(봉사자)가 될 수 있나요?

전문적인 지식은 유용하지만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사전 지식과 경험 없이 모범적으로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2040의 젊은 성도님들입니다. 참, 대체할 이름이 없어서 교사와 봉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사랑나무 친구들도 찾아오는 분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섬긴답니다.

8.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는데 주일에는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 오후 1-3시 토요체육교실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 도움 주기 원하시는 분들도 사랑나무 문을 두드려 주세요.

주위의 발달장애인들에게 사랑나무를 소개해 주십시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채인 전도사(010-6826-1514)

장애인 주일 특집

작은 예수로 사는 삶

작년 이맘때쯤 휠체어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에 초청을 받아 참석을 하였습니다. 우리 싯딤나무 지체들 중 몇몇도 휠체어 합창단의 일원이었기에 합창단이 매주 시간을 내어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연주가 끝나고 객석에서 앵콜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합창단은 우리 귀에 익숙한 <무조건>이라는 가요로 화답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수십명의 단원들이 활짝 웃으며 한 목소리로 “무조건”을 외치며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모두가 흥에 겨워 박수를 치고 있는데 그때 제 귀에 아주 익숙한, 그러나 이 공연장에서는 조금은 낯선 단어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이곡의 ‘당신’을 ‘예수님’으로 개사하여 모두가 신나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합창단이 아니었기에 얼떨떨한 것도 잠시, 이내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인생의 건기도 힘든 상황에서조차 주님께 뛰어가겠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휠체어가 걷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 말하며 힘차게 휠을 돌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와도 같은 믿음 아닐까요? 작은 겨자씨안에는 울창하여 4~5m되는 겨자나무의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생명을 품고 있는 겨자씨의 믿음이 우리 지체들에게 심겨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 11:1~2)”라는 성경의 말씀이 이러한 유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픔, 바늘에 찔리는 아

픔에도 불평불만하며 주님을 원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도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시간 동안, 어떠한 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매순간의 호흡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모욕, 차별과 냉대를 삶으로 겪어내며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작은 예수로서 그 삶을 묵묵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여정을 옆에서 함께하다보면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고 있는 이분들을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될 수밖에 없나봅니다.

장애인사역부의 지체들은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이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일원이며 주님의 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장애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들의 존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당시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올해는 부활절과 장애인주일을 함께 보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서서 고통받은 자, 아픈 자, 버림받은 자와 함께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주님의교회에도 풍성히 흐르길 기도합니다.

정지혜 전도사 / 장애인사역부

장애인 주일 특집

배려의 마음가짐

장애인 봉사를 해보면 어떻게냐는 몇 년에 걸친 어느 부장님의 권유를 자신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피하다가 문득 마음속에서 들려온 “나를 위해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이 퍼뜩 들어서 봉사를 시작한 지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봉사를 망설인 이유는 그분들이 장애 때문에 성격이 예민하고 까다로울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이었는데 봉사를 시작한 후 가까이서 지켜본 그분들은 우리와 같은 생각과 고민을 하는 특별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편견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느낀 이후에는 그분들과 함께하는 짧은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편안하고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장애인사역부 봉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그저 우리 입장에서가 아닌 그분들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추어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저도 말씀을 실천하며 깨달았습니다. 매년 열리는 사역박람회 때마다 ‘이번에는 젊은(?) 성도들이 봉사에 관심을 가져주겠지’라는 소망을 가져보지만, 매년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날 때마다 장애인 봉사가 힘이 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성도들의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음에 또 다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고, 평소에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장애인의 날을 지금처럼 일년에 하루를 정하여 기념하는 연례행사가 아니라 매월 최소한 하루씩 정하여 월례행사로 일상화하여 더 자주 관심을 가지게 유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바람은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분들을 만났을 때 길을 비켜주면서 배려하는 것보다는 그분들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또 도와

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르쳐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조금 달라서 불편한 그분들과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이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장애인사역부 지체들을 위하여 봉사를 하는 저희들의 작은 소망입니다. 사랑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재희 안수집사 / 장애인사역부 부장

장애인 주일 특집

믿음의 동반자, 믿음의 동역자

**장애인이자 봉사자는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반자이며
같이 배우고 격려하며 사랑하여
함께 하는 사이**

2006년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스스로는 돌아눕지도 못하고 병원의 하얀 천정만 바라보며 누워 지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일어났다. 그로부터 여러 달 동안 보행에 지장을 겪었고 바닥에 자유롭게 앉게 되기까지 또 여러 해가 걸렸다. 보행이 거의 자유롭게 된 그 무렵, 장애인사역부 부장님께서 장애인사역부에서 같이 일해보자는 권유를 하셨다. 우리 부부는 저절로 마음이 끌렸다. 단번에 예스를 했다.

그렇게 서로 처음 낯을 익히기 시작할 때 하나같이 우리 부부에게 모두 금방 가지 말고 오래 있어 달라고 했다. 우리 부부는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오래 같이 있자고 다짐했다. 다른 봉사자분들도 지체들의 이런 마음을 알기에 장애인사역부에는 봉사한 지 대부분 오래 되신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많다. 이제는 새로운 젊은이들이 들어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바톤을 넘겨받을 준비를 해야 할 때인데 아직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젊은 지원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흔히 장애인사역부에서 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전혀 다른 부서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장애인사역부에는 지체장애인부서(식당나무)와 청각장애인부서(에바다부)가 있다. 봉사자들은 식당나무 지체들이 주일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 있도록 돕는다. 식당나무 지체들은 휠체어를 주로 타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대중교통도 여의치 않은 분들이 많고, 장애인콜택시를 잡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다. 예배 전 장애인주차석에서 식당나무 지체들의 주차를 돕고 차에서 휠체어를 내려준다. 주차도우미가 계셔서 주차부와 협력하여 돕는다. 그런 다음 서로 소식을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국수를 같이 먹으며 교제한다. 식사가 끝난 후엔 교역자의 인도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는 사이 사이 약간씩 도울 일이 생기지만 힘이 들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다. 또 에바다부는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통역하는 권사님들이 예배를 돕고 예배 후엔 다과를 나누며 교제하고 역시 교역자가 인도하는 성경공부를

한다.

장애인들도 누군가의 봉사를 그저 받기만 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일은 자치적으로 꾸려나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안내, 찬양, 도서실봉사 등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한다. 양 부서 모두 몸이 불편한 것 빼고는 장애인이자 봉사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서로 믿음의 동반자, 믿음의 동역자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 장애인들은 봉사 대상이라기보다 보다는 ‘같이 배우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함께 하는 사이’다 라는 것이 더 적절한 말인 것 같다.

그 외에 1년에 한두 번 야외모임이나 수련회 등이 있어 휠체어를 밀 봉사자가 더 필요할 때는 부탁하면 언제나 달려와서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그런 행사를 더 풍성하도록 때마다 찬조금을 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진촬영이나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나는 이런 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오른편에 앉혀져서,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휠체어로 이동하실 때 밀어드리고 풍성하게 해드리고 필요한 것을 도와드렸나이까?’하며 고개를 가우뚱하는 행복한 장면이 떠오를 때가 있다.

지체장애인부서를 ‘식당나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다. 모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광야엔 풀 한 포기 없는 곳이 많은데, 그런 척박한 곳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암시하는 바가 큰 한 나무가 있다. 그 나무 이름이 바로 식당나무다.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자고 봉사자 한 분이 제안하여 지체장애인부서의 이름이 되었다.

청각장애인부서 역시 ‘에바다부’라는 이름이 있다. 이는 마가복음 7장 3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에바다’ 곧 ‘열리라’는 뜻이다. 복음에 대해 열리고 복음에 대해 말할 수 있기를, 또한 실재로도 귀가 열려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별칭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름을 만든 지 오래 되어서 양 부서 모두 그 뜻하는 바는 흐려지고 잊혀져 이름만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번 장애인주일을 맞아 양 부서 모두 그 뜻을 다시 새기고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관심 있는 많은 분들께 이들이 그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민자 권사 / 장애인사역부 지도권사

장애인 주일 특집 | 식당나무

편견과 편애

**장애인의 날 제정된 지 39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
모든 이들을 편견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부터 변
해야**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편애를 일상에서 경험하곤 한다. 편견과 편애는 세상 안에서 오직 자신만을 기준으로 생각을 틀에 가두어 놓고 살 때 시작된다. 사람들은 타인을 배려하기 보다는 자기 편의대로 순간 유익을 바라면서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가 쉽다.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나의 뜻 나의 생각으로 잣대를 세우고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하여도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다.

21세기를 흔히 정보화시대라고 하는데 아는 것은 더 풍성해지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편견과 편애는 더욱더 극심해지는 것 같다. 장애인에 관한 생각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지 39년이나 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39년이나 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여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

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39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에 관한 유엔 헌장과 장애인 관련 법역시 사람들이 애인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나 법을 통하여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한 것이다.

모든 이들을 편견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길 소망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 그런데 교회 생활 하면서 서로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게 된다면 누구든 상처를 받을 것이며,

때로는 그것은 교회를 떠날 정도의 상처가 될 것이다. 대부분 교회 지체들은 장애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다. 그럴 때는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편애보다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내가 족, 내 자식이 타인으로부터 편견과 편애를 받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은 그리스도인들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한균희 안수집사 / 식당나무

장애인 주일 특집 | 잇딤나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무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흔들렸지만 나뭇가지 잎사귀들은 제각기 달랐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사람들도 제각기 다를 터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 손길 있었습니

저는 2살때 소아마비가 걸리고, 국민학교 3학년때 경풍이 걸려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겨 버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의사들은 부모님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할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의사를 만나 치료가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자 보니 변명 같지만 어린마음에 자연스럽게 사회

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더라구요. 그래도, 어찌하다 보니 화를 내고 분풀이하는 것보다 그런 아픔들을 속으로 삭히는 법을 일찌기 배워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의 처세술로 인식을 해버렸나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두 마리의 견(犬)공이 있고, 그 견공들을 없애는 것이 인류의 숙제가 될 겁니다. 그 견공들의 이름은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지요. 어쨌든,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차별대우로 많은 분함과 불만이 가득 차 10대 이후부터 20대까지는 거의 개차반(?)으로 살아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친구와 주님의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 당시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생

활이 10대 때나 20대 때의 생활과 완전히 바뀐 30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물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람은 분명히 불었고, 그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유심히 지켜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흔들렸지만, 그 나뭇가지에 달려 있는 잎사귀들은 제 각각 달랐습니다. 어느 잎사귀는 방향이, 어느 잎사귀는 각도와 모양이 전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은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알 수 없는 바람이지만 나뭇가지는 흔들리고 그 가지에 붙어있는 잎들은 각각 다르게 흔들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다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역시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뒤돌아 보면 나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적은 한번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이방인이었을때도 말이죠. 내가 죽을 고비를 맞이했던 어렸을 때도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의사를 붙여 주시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어려운 일은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도와 주시리라 굳게 믿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김동관 안수집사 / 잇딤나무

장애인 주일 특집 | 잇딤나무

아낌없이 도와주는 나무

처음엔 장애인 아닌 내가 왜 함께 하는지 웬지 망설여졌지만 말씀에 중심을 두니 내 마음에 작은 교회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제는 서로 서로 약함을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아파하며 기도해준다

잇딤나무에서 함께 성경을 공부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몇 년 전 내가 속해 있던 구역이 없어지는 바람에 어디에도 소속된 데가 없어서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곤 했었다. 이야기를 나눌 곳이 없으니 예배를 드려도 뭔가 충족되지 못한 기분이었다.

지금의 잇딤나무 집사들은 이전 흠어진 모임에서 함께 말씀 듣고 교제하던 사이였다. 구역이 없어지자 몇몇이 모여서 지체장애인들 모임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꾸렸다. 내가 국수 먹

으려고 줄 설 때 만나면 인사하곤 했는데 나에게 잇딤나무 모임에 들어오라고 권했다. 처음엔 웬지 망설여졌다. 나는 지체장애인이 아닌데. 내가 그 모임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원래 잘 아는 동생이고 친구같은 관계이기에 시간이 될 때마다 나가기 시작했다. 또 몇 번씩 빠지기도 하면서 띄엄띄엄 나갔다. 교회에서 예배 말고 마음 둘 곳이 없었던 나는 이 모임에 점점 마음을 두기 시작했다. 잇딤나무 성경공부 모임이 말씀에 중심을 두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모임이라, 서로의 처지를 잘 아는 나에게 잇딤나무 성경공부 모임은 결국 내 마음에 작은 교회로서 자리잡았다.

우리 잇딤나무는 현재 매주마다 정지혜 전도사님과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 열정적인 전도사님의 수준까지 잘 따라가진 못하지만 교재를 한 권 마칠 때마다 책씻이 파티도 한다. 교재가 차곡차곡 쌓이듯이 우리의 영성

도 쌓여 성숙해지길 바란다.

봄 가을이면 교외로 나들이도 간다. 휠체어가 갈 만한 장소를 정하기 위해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은 사전답사까지 꼼꼼히 하신다. 덕분에 편하게 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 지난 봄에는 어린이대공원으로 갔었는데 산책로, 식물원, 동물원 등 곳곳을 휠체어로 누비며 봄을 만끽했다. 점심 식사하러 이동할 때에는 휠체어 여러 대가 줄지어 거리를 점령(?)하는 장관도 보였다. 우리가 거리의 주인공이었다.

잇딤나무에는 '신체적 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크고 작은 건강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는 입원을 하고 누군가는 퇴원을 하곤 한다. 그래서 기도 제목의 첫번째가 "건강"이다. 서로 서로의 약함을 알기에 진심으로 아파하며 기도해 준다. 나도 몇 차례 수술을 받을 때 잇딤나무 지체들, 전도사님, 목사님이 마음

을 다해 기도해 주셨기에 지금은 많이 건강해졌다. 감사할 뿐이다.

처음에는 몇 명이 모인 작은 모임이었다. 성경공부 인도자도 없이 우리끼리 모여 성경을 읽기만 했다. 그러던 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말씀을 알려주시는 전도사님도 계시고 아낌없이 도와주시는 집사님과 권사님들도 계시는 공동체로 자리잡았다. 최은희 집사님, 김선래 집사님, 이민자 권사님, 김훈 성도님, 김익훈 장로님 이외 여러분들이 섬기신 덕분이다. 전에 인도하셨던 권혁준 전도사님, 송바울 전도사님, 정창화 목사님과 현재 담당하시는 황바울 목사님 덕분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만드셨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글을 마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아멘.

김혜영 집사 / 잇딤나무

장애인 주일 특집 | 에바다

소리없는 세계



청각 장애인 듣는 귀 즉 외이, 중이, 내이를 거쳐 대뇌로 연결되는 청신경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잘 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외이와 중이까지 소리를 전달하는 경로에 손상이 있을 경우를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고, 내이와 청신경계의 이상이 있는 경우를 감각 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청각의 감도에 따라 난청과 농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이 모두를 포괄하여 청각장애라고 부릅니다. 일상생활에서 농과 난청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청각 장애인”이라는 단어는 ‘장애’를 강조하는 단어이나, “농인”은 장애보다는 농문화를 가지고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뜻하는, 보다 더 주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청각 장애인을 “농(아)인”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농인들이 소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인간으로 부족하거나 비정상이라는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앞에 모든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

기 때문입니다.

농인들은 청인들과 다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세계”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농문화’라 부르는데 농문화 중 가장 큰 특징은 소리 없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소통하는 언어인 “수어”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청인들과 다른 문법과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농인과 청인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도 농아인 공동체인 에바다부가 있습니다. 에바다부 역시 주님의교회의 가족으로 주님의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관심과 배려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바다부를 사랑해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에바다 식구들 더욱 사랑해요!

박부미 권사 / 에바다부 수화통역

장애인 주일 특집 | 에바다

하나님 사랑 알게하신 에바다



몇 년 전 저는 베트남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그 때 비전 트립에 함께 참여한 에바다부 수화 통역으로 섬기시는 최영숙 권사님과 서옥숙 권사님과 함께 에바다부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비전 트립을 섬기면서 서로 말이 통하진 않았지만 참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섬기는 부서가 달라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예배시간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나가다 만나면 정말 반갑고 항상 함께 하나님께 은혜받은 기억을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에바다부 반주를 해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청각 장애인 예배에도 피아노 반주를 한다는 이야기에 한 번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분들이 음을 들을 순 없어도 피아노에서 나는 소리나 진동을 느끼면서 반주를 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의 마음에 에바다부를 예비하시고, 에바다부로 인도하심을 깨닫고 에바다부 반주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에바다부를 섬기면서 성경말씀 하나하나 세세한 이름과 지명까지 자

세히 알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는 에바다 식구들의 모습에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시작 된 에바다부에서 생활은 에바다부 식구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제가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수화가 서툴러 잘 모를 때마다 천천히 설명해 주셔서 불편함 없이 에바다 생활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

에바다부를 섬긴 이후 제 생각과 생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화도 영어나 중국어처럼 널리 쓰이는 또 다른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전 같았으면 관심도 없었을 TV 프로그램이나 길을 가다 보이는 편의시설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가진 편견과 잘못된 생각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서로 소통하는 도구가 다를 뿐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것을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항상 주님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자 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에바다 식구들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이혜리 집사 / 에바다

장애인 주일 특집 | 에바다

한 식구가 되도록 이끄신 하나님

에바다부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기쁨의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며 늘어갑니다

2007년 9월에 심성임 집사와 저는 주님의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당시 에바다부는 어르신들이 5명~6명 정도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때 수화통역으로 섬기셨던 최영숙

권사님께서 주일마다 매일 맛있는 것을 사주시고 농인들과 함께 수화로 대화하셨습니다. 최영숙 권사님과 에바다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의교회 에바다부에 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봉사도 많이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습

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농인, 청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십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에바다부에 농아인들이 계속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의 공동체에 복음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전도하여 이제 우리 지체들은 25명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같이 식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에바다를 한 식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되어 주님의 몸이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주님께 서 우리 에바다부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미수 집사 / 에바다부

장애인 주일 특집 | 에바다 간증

세 번의 교통사고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하겠노라 고 열심을 내는데도 이상하게 사업도 잘 되지 않고 가정적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불행한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오히려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농아인으로서 그러한 작은 경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자체가 전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과 복음 사역을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농인으로서 저 역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물질로 극복하려 하고, 물질을 통해 성취를 맞보려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주님의 전적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저는 삶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리는 살 수 없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994년 5월 어느 날 민속촌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행들은 먼저 갔기 때문에 저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옮겨

졌습니다. 큰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고 타박상만 입었습니다. 입원 2개월 동안 하나님께 많은 은총을 입었습니다.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흘러 1995년 1월 1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강변역에 내려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신정 연후라 대부분 병원 문을 닫아 집 가까운 병원에 겨우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회복하여 입원 1개월만에 퇴원하여 약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 후에 1995년 12월 대림절 40일 특별새벽기도회에 시간이 늦어서 서두르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상처가 하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저

는 가운데 자리에 앉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고 저만 다쳐서 삼성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봉고차가 폐차될 만큼 큰 사고였지만 다행히 대부분 사람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이 세 번의 교통사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통사고였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해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이 좋아지면 다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오늘과 내일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미혜 집사 / 에바다부

장애인 주일 특집 | 꼬마 인터뷰

몇분 안 되는 수화통역자 서옥숙 권사

전엔 3부예배 때 수화통역자와 함께 에바다부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부터 5층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이 들렸다.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았던 터에, 장애인 주일을 맞아 수화통역 봉사를 오래 하고 계시는 서옥숙 권사님과 꼬마 인터뷰를 가졌다.

언제부터 주님의교회에 나오셨어요?

지인의 소개로 2002년 9월 1일 오게 되었습니다. 첫날 주님께서 우리 부부를 붙잡아 주셨지요

아마도 다른 봉사도 많이 하셨거나 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요?

잠시 2년 동안 개척교회에 헌신하고 주님의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를 지냈습니다. 지금은 수화통역으로 농아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수화통역 봉사를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수화통역 봉사를 어떻게 해오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했지요. 힘든 이들을 돕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수화를 배우게 되었어요.

에바다부와 함께 해오셨을 것 같은데, 에바다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에바다예배는 11시에 5층 1집회실에서 있습니다. 30~35분 정도밖에 못드리는데, 40분에 EM어린이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시간에 쫓겨서, 농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수화통역을 배우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는지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통역을 시작한 건 4년 됐어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요.

지금 하시는 수화통역의 수준은 스스로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통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농아인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수화통역자가 많으셔야 좀더 활발한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통역자는 안계신지요? 만일 수화통역자를 교회내에서 양성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에서 수화교실을 1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시는 성

도님은 없어요. 시간이 없다, 바쁘다, 어렵다 등 여러가지 형편 때문에 지속하기가 힘들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통역자가 있다면 농아인들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각 부 예배마다 설교를 포함한 예배 내용 모두를 수화통역을 하고 화면 오른쪽에 수화통역 화면을 삽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려면 수화통역자가 여러 명 필요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에바다 예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구요. 여러 성도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모르구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부서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요?

농아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는 상처도 받았지요. 이제는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농아인들은 생각, 마음,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멀리 있는 형제 자매를 부를 때 뛰어가서 등을 만지거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자주 뛰어 다녀야 합니다.

주님의교회 일반 성도님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느 권사님은 후원도 해주시고 간식도 주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도님들은 기억을 못 하실것 같아요.

청각장애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현재 상황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교회 차원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후에 성경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영상이 풍성하게 있었으면 합니다. 농아인들은 보면서 느끼고 이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밖에 이번 기회에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마 일반 성도님들은 누가 농아인인 줄 잘 모르실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반갑게 따뜻하게 인사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서옥숙 권사님은 굳이 사진 수록을 마다하셨다. 하지만, 부활절 주일에배때 에바다 수화찬양을 지휘한 분이 바로 이분하신 것을 아는 분들은 아실 것으로 믿는다.

함줄함울

장애인 주일 특집 | 함글함글 리포트

주님의교회와 유니버설 디자인

지난 주일은 장애인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예배와 함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와 장애인의 고난이 중첩되어 더욱 각별하였습니다. 함글함글 편집팀은 작년에 이어 장애인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의교회 시설이 장애를 가진 교인에게 적절한지 여부를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이동약자와 유니버설 디자인

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불편함을 겪는 때는 바로 이동할 경우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자의 인구비율이 커지는 고령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유모차, 유아 등 모든 이동약자를 고려하여 계단의 설치를 최소화하는 소위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잠재적 장애인입니다. 누구든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해지고, 어린이, 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모두 이동약자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기준으로 모든 시설을 만들면 모두에게 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시설이 많은 도시에서 계단의 설치 불가피하므로 계단과 함께 엘리베이터, 램프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동약자가 이동 중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교회 건물

주님의교회 건물은 일반 건물과 달리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크게 대/중/소예배실이 모여 있는 남쪽 동(이하 예배실동)과 교육

실, 친교실, 회의실, 교역자실, 사무실 등이 모여 있는 북쪽 동(이하 교육실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육실동은 지하를 포함하여 모두 6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배실동은 교육실동과 건물 높이는 같지만 대예배실 때문에 층수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실동과 교육실동은 지하층, 1층, 2층에서 서로 연결되어있고, 교육실동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가 설치되어있으므로, 예배실동은 지하층, 1층, 2층에서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실동의 나머지 층은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담임목사님과 인사 나누기 어려운 대예배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이동약자가 어떻게 대/중/소예배실에 갈 수 있는지를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예배실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동약자가 대예배실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교육실동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좌측과 우측에 있는 꼬불꼬불한 비상구를 통해 들어옵니다. 대예배실 최하단부의 서너 줄 정도의 좌석만 계단이 없고 그 이상은 계단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른 자리는 앉고 싶어도 계단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앉기 힘듭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싶어도 상단부의 출구까지는 계단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서 어렵습니다.

안내표지판이 부족한 중예배실

그럼 중예배실은 어떤가요? 이동약자가 중예배실에 가려면 교육실동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층으로 가서 긴 램프를 타고 내려가야 합니다. 그

런데 그 램프가 중예배실로 가는 통로인 줄을 알려주는 표지판은 없습니다. 다행히 중예배실 안에는 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약자가 예배실 안에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약자에게 가장 편한 소예배실

소예배실은 교회의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로비를 가로질러 정면에 있습니다. 소예배실을 도달하는데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예배실 내부에 램프도 있으니 이동약자에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예배실은 우리 교회의 유일한 이동약자 친화적 예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램프와 비상대피 매뉴얼 필요한 대예배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의 대예배실과 중예배실에 대한 이동약자의 불편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동약자에게 가장 불편한 대예배실의 문제를 열거하겠습니다. 대예배실의 상단부와 하단부를 오르내리는 통로가 모두 계단이므로 중앙통로는 램프로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만약에 대예배실에서 지진,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비상대피 매뉴얼이 준비되어있나요? 어느 좌석부터는 상단으로 대피하고, 어느 좌석부터는 하단으로 대피해야 하며, 좁은 비상구 때문에 어떤 식으로 줄을 서야 하는지를 정했는지요? 비상대피 매뉴얼에 따라 일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비상대피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앙통로가 램프로 되어있으면 이동약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상 엘리베이터 필요한 중예배실

중예배실 내부는 램프가 있어서 이동약자의 이동이 편합니다. 그러나 지하에 위치한 중예배실에 비상대피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엘리베이터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중예배실 입구의 로비로 가면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 계단뿐입니다. 지하철에 있는 휠체어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비상시에만 필요하니 여러 사람이 미는 수동식이면 되겠지요.

상세한 안내판 설치 필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우리 교회의 예배실을 이용할 때에만 한정된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각 층에 있는 집회실에 가려면 한 대밖에 없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더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곳곳에 안내판이라도 잘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새가족처럼 교회 내부 지리를 잘 모르는 이동약자가 모임이 있는 집회실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지도판이 곳곳에 설치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안내할 때 안내지도판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에 시설을 더 설치하려고 해도 공간이 부족하여 어렵습니다. 그래도 비상대피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비상대피훈련을 하며, 처음 오는 분도 건물내부를 잘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잘 설치하고, 부분적이지만 램프를 설치하는 일 등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작은 배려이지만 이동약자의 편의와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글함글

사역보고 | 이미용부

장애인 시설, 강화도 색동원 이미용 봉사 재개

이미용부에서는 2012년까지 봉사를 하던 강화도 색동원 봉사를 2019년 4월부터 다시 시작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봉사를 한다. 강화도 색동원은 40여 명 장애인이 지내고 있는 시설이다. 4월 5일 다시 찾은 색동원에서 봉사자들이 의자에 앉은 장애

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위손을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천사들의 모습들 같았다. 이미용부에서는 36명 봉사자들이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한다. 2008년부터 국내외 여러 봉사를 해오고 있다. 이미용부에서는 매주 주일에 오후 1

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3층 미용연습실에서 연습을 한다. 화요일이 새로 시작했는데 매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한다.

함글함글



꼬마인터뷰 | 첫 수요강좌 마친 정창화 목사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

지난 7일, 첫 수요강좌 <로마서 8장>이 다섯 번째 강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힘든 과정을 마친 정창화 목사를 만나 짧은 인터뷰를 가졌다.



올해 들어 첫 수요강좌를 맡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친 소감이 어떠신지요?

첫 번째 시리즈 설교를 한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5주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연속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의 사랑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로마서가 교회 안에서 갖는 의미가 각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점에서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특히 이번 로마서 강좌에서 고인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교리 가운데 핵심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복음과 구원, 칭의의 교리를 그 어떤 책보다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8장은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필립 슈페너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경이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어떤 주제의 강좌를 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대학원에서 한국교회의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시간이 주어진다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강좌를 마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이미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셨고, 로마서 강해는 책으로도 많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제 설교는 그분들의 글을 흉내 낸 수준 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충분히 준비해서 더 간결하게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족한 설교를 경청해 주신 교우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영적 갈급함을 채워 가시는 수요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역소식 | 음악위원회

부활절음악예배, 오라토리오 <예수 그리스도>

2019년 4월 21일 부활주일 오후 4부예배시, 부활절 오라토리오 '예수 그리스도'가 장중함과 감동 속에 은혜롭게 연주되었다. 지휘자와 연주자들(솔리스트, 살롱찬양대, 주오오케스트라)은 13주 동안의 준비와 연습을 통해 이 멋진 곡을 무대에 올렸다. 이번 오라토리오에는 불과 2년 전에 장신대에서 초연되었을 정도로 일반은 물론 찬양대에게도 낯선 곡이어서 악보 구입과 연습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음악위원회는 행사준비팀(기획, 디자인, 무대설치, 영상, 음향, 사진촬영 등등)을 주도하며 드러나지 않는 손길로 이번 공연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헌신했다.

사역소식 | 호스피스팀

호스피스팀 춘계학술 세미나 참석



호스피스팀에서는 4월 13일(토) 대전 하늘문교회에서 열린 한국호스피스협회 춘계학술 세미나에 다녀왔다. 23명 봉사자들이 참여하여 '환자 임종을 넘어 사별자 가족돌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특강을 들었다. 병원에서 봉사를 하며 궁금하였던 다양한 상황, 임종돌봄에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 등 강의를 들으며, 환우들과 보호자 등 의사소통 문제를 봉사자들의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역소식 | 군선교팀

제3보병사단 신병 세례예식



19년 4월 20일 토요일 44명의 교우님들이 제3보병 사단 신병교육대 세례예식에 다녀왔다. 세례예식과 더불어 함께한 안보교육으로 백골부대 멸공전망대와 끊어진 금강산 철교를 걸으며 반으로 끊어진 한반도를 생각해보았다. 이번 세례예식에서 110명 신병들이 주님의 귀한 아들로 세례를 받았다. 군선교팀에서는 매년 6번 신병세례예식을 가진다. 다음에는 6월1일(토)에 신병세례예식을 가지며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한다.

알립니다

1. 교회 유튜브 채널 개설

주님의교회 PCL 로 검색하면 주일, 수요일, 특별예배 설교말씀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왕세윤 집사(010.6751.9870)

2. 해외 비전트립 물품 후원

기간 : 4/28~5/19 매 주일 오전 8:30~오후 2:00

물품 : 선교지 요청물품 및 선교지 청소년초청수련회 후원

문의 : 이재홍 안수집사(010.7738.4455)

▶ 제품 일괄 구매 및 세관 통관상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현금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 : SC제일은행 204-20-112255 (예금주 : 주님의교회)

3. 2019 어린이 무지개 잔치

주제 :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일시 : 5/4(토) 오전 9:30~오후 4:00

장소 : 주님의교회 및 정신학원 운동장

▶ 대중교통 및 종합운동장 주차장 이용 바랍니다.

4. 정신여자중학교 '진로의 날' 멘토 모집

일시 : 7/12(금) 오전 9시~ 오후 1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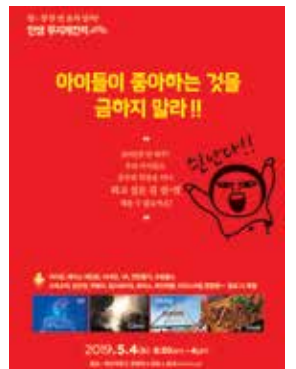
장소 : 정신여중 김마리아회관

문의 : 임경순 목사(010.8466.0605)

진로의 날이란? : 자신의 적성을 찾아 원하는 곳으로 진학한 선배 멘토를 초청하여 경험담을 듣는 시간

▶ 성도님들 중에서 선배 멘토로 강의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약 80개 분야: 가수, 배우(뮤지컬,연극,엑스트라), 연예인, 래퍼, 무용가(발레리나,안무가,댄서), 댄서, 실용음악가(가수,기타,작곡가,피아니스트), 작곡가, 화가, 프로그래머, 애니메이션제작자, 영화감독, 사진작가, 유튜버(유튜브크리에이터), 작가(동화,드라마,방송,사진,시나리오,웹툰,애니메이션), PD(광고,방송,예능,음악), 웹툰작가, 성우, 아나운서, 기자, 엔터테인먼트, 특수분장사, 연예기획사대표, 광고기획사, 마케팅전문가, 모델, DJ, 개그맨, 운동선수(리듬체조,배드민턴,수영,축구,태권도,핸드볼), 스포츠기록분석가, 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메이크업아티스트(네일아티스트포함), 일러스트레이터, CEO(의류), 디자이너(가구,건축,그래픽,시각,인테리어), 헤어디자이너, 요리사, 제과제빵사, 바리스타, 쇼콜라티에, 수의사, 애견행동교정사, 애견미용사, 사육사(조련사), 의사(내과,성형,소아과,신경외과,외과,응급의학과,정신과,피부과,흉부외과), 간호사, 약사(허브약사), 치과의사, 신약개발연구원,과학자(로봇과학,물리학,생명공학,유전공학,천문학,행성지질학,화학), 심리상담사, 심리학자, 프로파일러, 역사학자, 수학자, 프로그래머, 웹개발자, 교사(미술,역사,영어,중국어,체육), 초등교사, 유치원교사, 어린이집교사, 교수, 경찰, 외교관, 공무원, 변호사, 판사, 검사, 정치인(대통령,외교관), 형사, 군인, 사회복지사, 소방관, 승무원, 통번역가, 경호원, 건축가, 국제기구(NGO활동가), 조향사, 회계사, 기상예보관)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